

말레이시아 선교보고

해외선교를 허락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



말레이시아는 인구가 약 2,800 만명으로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의 60% 이상이 말레이반도에 살고 있고 토종 말레이사람은 절반정도인 55% 중국계 말레이인이 30% 그 외 인도계를 비롯한 소수민족 가운데 한국인이 1,500명 다양한 민족이 함께 어울려서 살고 있다.

종교는 이슬람교가 주를 이루지만 다른 이슬람국가들에 비해 자유로워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힌두교사원, 불교사원, 천주교 등등의 종교 건축물을 볼 수 있지만 기독교 전파의 역사는 깊지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바투셈빌라 백운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새삼 깨닫게 된다.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정이 시작되어 4월 25일 오전10시 교회서 출발 인천공항에서 오후4시 30분 이륙,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밤10시에 도착 티스포토디슨 리조트 12시 30분에

아버이날을 생각하며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화목한 가정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부모님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늘 표현하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곤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사랑을 표현한 쪽은 늘 부모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시험기간에도 음료수와 간식으로 힘내라고 말씀하시면서 격려할 때마다 힘이 되어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는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는 늘 아빠 엄마에게 사

도착하여 1박을 하고, 26일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스노클링 제트스키, 바나나보트를 체험한 후 즐거운 자유 시간과 휴식을 취하며 다음 날의 봉헌 예배를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27일 아침 7시 30분에 선교사님이 가져오신 버스를 타고 12시에 바투셈빌라 제천백운교회에 도착하여 박길순선교사님 사회로 예배를 시작하여 바우더 본교회 목사님이 기도가 있었고 그 교회 성도님들의 특송에 이어 백운교회 담임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선교사님께서 통역하시고 교회소개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특송에 이어 부채춤공연을 하고 땅을 기증한 양인씨가 인사하고, 이어서 백운교회 성도들이 바투셈빌라 제천 백운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들로 준비한 바투셈빌라 제천 백운교회 간판과 기타, 수건, 티셔츠, 초코파이를 전달하고, 유인희권사님이 보낸 사랑의 기부금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 백운교회 신상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그곳 성도님들이 정성껏 준비한 점심식사를 하고 쿠알라룸푸르로 다시 와서 말레이시아 여행을 하며 남은 일정을 은혜 중에 잘 마치고

29일 오전에 백운교회로 돌아오는 것으로 바투셈빌라 제천 백운교회 봉헌예배 선교여행의 일정은 감사하게 마무리되었다.

이 글을 쓰면서 잠시 돌이켜보면 내가 한국 땅에 태어나서 백운교회의 성도로 살아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게 된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하기도 했다. 바투셈빌라에는 어른들은 별로 없고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많아서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으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그곳에 다녀오니까 그곳에서 만난 바투셈빌라 백운교회 성도들이 눈에 밝힌다. 다시 한번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결심을 한다. 근데 그곳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을 보면서 나를 돌아본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는 박길순 선교사님과 바우더 목사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기도로 도와야겠다.

<원서/편월선 권사>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랑받고 있었던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글에 의하면 “부모에게 자식은 언제나 부채고, 자식에게 부모는 언제나 자산이다.

그렇지만 무지한 자식들은 부채와 자산이 역전된 것처럼 느낀다.”라는 글을 읽어 본적이 있습니다. 먹이시고, 재우시고, 입히시고, 언제나 주시는 부모님께 부족함을 느껴 짜증으로 화답했던 나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가정 안에서 내가 받은 감사의 내용들과 사랑을



입과 몸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랑으로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항상 같이 하시던 하나님께서 저와도 함께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평동/윤준성 학생>

말레이시아 바투9 제천백운교회 봉헌예배

4월25~29일 3박5일



▲바투 교인들과 함께.



▲우리가 건축한 교회 외관 모습.

사진설명 : ①말레이시아 출발 예배 후 배웅하러 오신 분들과 함께 ②바투9으로 출발 전 선교사님과 함께 ③교회 현판 전달 ④⑤바투9교우들과 백운교회 교우들이 함께 예배 찬양 ⑥함께 식사하는 모습.



▲봉헌예배를 마치고 출발 전.

